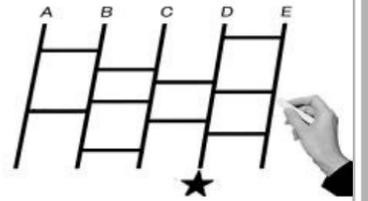


제비 뽑기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학교 학부모 독서모임에 가입을 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독서회 같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지만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지인들과 해보려고 하니 호응이 없었고 모르는 사람들과 낯선 모임에 나가는 것은 망설여지던 차였다. 그런데 마침 아들 학교에 독서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기회다 싶어서 내 인생 첫 독서모임을 시작했다.

매번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만나게 되는 것은 꽤나 흥미로웠다. 의견을 나누면서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내가 매달 책 한 권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독서회 경험이 많은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매달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리더가 되어 책을 선정하고 모임을 진행했다. 하지만 선뜻 리더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매번 애를 먹었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기로 했다. 방법은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규칙은 다들 알겠지만 사람 수만큼 세로줄을 긋고 한쪽 편에는 이름을 쓰고 반대쪽에는 선정할 상품이나 주제를 쓴 뒤 세로줄 사이사이에 가로줄을 무작위로 그은 다음, 세로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로줄을 만날 때마다 가로줄로 연결된 다른 세로줄로 옮겨가는 게임이다. 사다리가 그려졌고 모두들 긴장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다리를 지켜봤다. 다들 다음 달만은 피해 가자고 생각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다음 달인 6월의 리더가 결정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달이었다. 독서회에

서 처음 만난 수줍은 미소가 선해보이던 회원이 6월, 나는 7월이었다. '에이 다음 달이네.....' 하며 허탈하게 웃으며 즐깁니다. 옆을 보니 6월의 리더가 된 그녀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심각하게 상기되었다. 독서모임에서 두 차례 만났을 뿐이지만 그녀는 아주 집착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매번 그녀의 서평에는 성의 있는 고찰의 흔적이 느껴져서 꽤나 진중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녀에게 세 차례나 사다리를 다시 그려 보이며 설명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수긍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급세 공기가 어색해졌다. 그렇다고 누군가 대신 6월을 맡아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이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사다리가 이상하게 그려진 것 같으며 타인을 원망하다가 본인이 6월은 너무 바쁘다, 아이가 1학년이라 신경 쓸게 많으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독서회에 대부분은 1학년 학부모였는데 말이다. 참으로 난감하고 불편한 순간이었다. 7월을 맡은 내가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안 되는 얇은 책을 선정하거나 시를 나누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염려 말고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 는 위로 아닌 위로를 전했다.

사다리 타기란 그런 것이다. 결과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못마땅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애초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모두가 꺼려

하기에 제비 뽑기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비 뽑기는 술래나 차례를 뽑을 때 가장 만만하고 공정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복불복이다. 모든 참가자가 본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운으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를 반복해서 연습해 왔고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제비 뽑기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 동참했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모든 사람은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제비 뽑기 결과에 정색하는 사람을 목격한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였다. 성인이 되어서는 처음인지도 모르겠다.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자기가 뽑혔을 때 장난으로 아우성치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하지만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 독서모임에서 꽤나 진지하게 그랬다는 것은 나에게 다소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사람들이 몇 번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설명해 주었지만 끝까지 수긍하지 못하는 얼굴로 돌아섰던 그녀가 잊히지 않는다. 두고두고 기억될 제비 뽑기였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다릅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 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rate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